

이신칭의의 은혜

새부대교회 · 본문 롬 5:1-11

오늘의 말씀

로마서 5:1-11 · 개역개정

¹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²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³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, ⁴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⁵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⁶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⁷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⁹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¹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¹¹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

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?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세 가지로 보여 줍니다. 하나님과의 화평, 환난 중의 즐거움,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견고한 소망입니다.

1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(롬 5:1-2)

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,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었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(롬 3:9, 19).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. 설교자는 규칙과 방향성 없는 열심은 오히려 인생을 저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죄를 용서받아 저주가 끊어지고 심판에서 벗어나,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처럼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.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과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.

2 환난 중에서 즐거워합니다 (롬 5:3-4)

하나님과의 샬롬은 환난까지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.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며,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(잠 24:10).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환난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는 연단으로 해석하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.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,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(히 12:5-11). 여호와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며(잠 17:3), 그 연단을 통해 성도는 절제된 마음과 참된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.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바로 환난 중에 나타납니다.

3 십자가 사랑이 소망을 견고하게 합니다 (롬 5:5-11)

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나 의로움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,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.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없음을 알기에, 그 사랑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. 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합니다.

핵심 문장

우리가 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합니다.

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여,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누리십시오. 환난 중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,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십시오.